



길림 각지, 봄바람 따스하고 농사준비 드바쁘다

봄기운이 무르익고 농사준비에 드바쁜 넓디넓은 흑토지에 활기가 차넘친다.

올해 길림성은 재배면적의 안정화와 단위당 생산량 증가에 주력하여 정상 기후 조건에서 량곡 총생산량 880 억근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길림성은 농업대성으로서 줄곧 량곡안전 보장을 중요한 직책으로 삼아왔다. 올해 전 성 각지에서는 조기 계획, 조기 배치, 조기 행동을 실시했다. 기술 육성에서 과학적 농자재 선정, 보호성 경작 확대, 고표준 농경지 건설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활기찬 봄농사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조기에 다그쳐 춘경 물자 비축 완료

련일, 성내 각지에서는 춘경생산 제반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가들마다 시간을 다그쳐 농사일을 하는 광경을 보이고 있다. 농자재 구입, 토지 정비 및 비료 준비, 농기계 점검수리, 농업지원 봉사... 등 농사준비가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량곡 생산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선수'를 잘 두고 있다.

서란시는 2025년에 215.5만무의 량곡 재배를 예상하고 있다. 43개 품종을 보급하고 특별행동을 실시하며 가짜저질제품 단속전담팀을 설립하여 농자재의 충분한 비축과 공급판매 경로의 원활을 보장하고 있다. 반석시천우농업물자판매점은 물자 비축이 풍부하다. 벼와 옥수수 종자를 분류하여 진렬했고 화학비료, 농약 가격을 감시

하며 논밭으로 직접 배달하는 봉사도 제공하고 있다. 료원시 여러 현(구)들은 전면적으로 춘경 준비 열풍을 일으켰다. 료원시진화가정농장에 들어서니 대형 트랙터, 무경작 파종기 등 농기계가 일자로 늘어있고 기술자들이 점검수리에 바쁘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주일 2배치(一周双调度)' 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춘경 준비 자금과 물자가 충족하다. 농안현개안진철유농기계전문합작사에서는 농기계 점검수리일군들이 10여대의 농기계에 대해 전면적인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농기계가 최적의 상태로 춘경에 투입되도록 확보하면서 고효율의 생산을 조력하고 있다.

쌍로시 영가향 영가촌에서는 집집마다 종자, 화학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비축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강능으로 량식안전의 토대 다지다

종자는 농업생산의 '침'이다. 길림운전화태평전생산기지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개의 생산라인이 만부하로 가동되고 있으며 기업은 과학적으로 일군을 배치하고 생산을 다그쳐 하루 200여톤을 생산, 이미 760만자루에 1만 5,000톤을 가공했다.

공주령시 쌍성보진 치산촌 회의실은 빈자리가 없다. 농업과학기술육성에 참가한 농민들에게 농업전문가가 현장에서 옥수수, 콩 재배 신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다. 한 촌민은 "파종, 육묘, 지막 사용 등 방면의 농업

과학기술 요점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다. 이번 특강에 참가하러 온 것은 바로 자신을 충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리수현의 각종 농민전문합작사들은 조기에 시작하고 조기에 비축하며 춘경 준비를 잘 틀어쥐고 있다. 리수현은 현대생산단위건설생산육성반을 개최하여 '리수모식'을 한층 더 탐색, 혁신함으로써 옥수수 단위당 생산 수준을 향상시켰다. 리수현중혜재배농민전문합작사는 지난해에 주변 7개의 합작사와 연합사를 설립했다. 올해 춘경 준비 단계에 연합사는 필요한 종자, 화학비료 등 농자재를 통일적으로 주문하여 농자재 원가를 낮추었다. 농자재의 충분한 비축으로 농민들은 경작 준비에 자력이 생겼다. 합작사 책임자는 "우리는 올해의 량식생산에 아주 자신이 있다. 보호성 경작을 통해 토지를 더 잘 보호하고 리용하며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관리로 춘경 안전망 구축

2월 28일, 길림성농업농촌청과 길림성공안청,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등 3개 부문은 연합으로 전 성에서 중자시장 위조단속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인기' 종자와 생산기업을 주선으로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농업생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지에서는 농자재 집범검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농자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성시는 집중적으로 농자재 시장 전

문집범 정비행동을 전개했다. 백성시종자감독관리소 소장 풍육빈은 "생산경영단위의 가짜저질, 상표침해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농자재 시장 환경을 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길현농업종합행정집범대대는 전현 종자판매소에 대해 전면적인 집범검사를 전개했다. 대대장 손립동은 "옥수수, 벼 등 품종에 대한 표본검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농자재의 안전 품질을 잘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하시 농업부문은 농민들이 춘경물자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기술 육성을 조직하며 농자재 가짜 단속과 타지 상호 검사를 가동하여 농자재 분야의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다. 통화시농업농촌국 재배업관리과 과장 왕추원은 "농자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저질제품을 엄격히 단속하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의 인도하에 우리 성 각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춘경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에너지 부여에서 물자 보장, 엄격한 감독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여러측의 노력과 땅이 응집되어있다. 전 성 인민의 공동 분투하에 이번 춘경생산은 반드시 올해의 량곡 대풍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고 국가 량곡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길림의 힘을 기여할 것이다.

/ 길림일보

815개 단위 3.8만여개 일자리 제공

'동북 5개 대학' 2025년 졸업생 봄철 이중초빙회 길림대학편 개최



3월 25일, 길림대학과 길림성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졸업생 봄철 이중(双选)초빙회(동북 5개 대학 이중초빙회 길림대학편)가 길림대학 송지평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전 성 66개 대학의 2만여명 졸업생들이 이날 초빙회에 참가했다. 이는 길림성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급별이 가장 높으며 참가 인수가 가장 많은 교정 채용 플랫폼이다.

'동북 5개 대학'은 할빈공업대학, 길림대학, 대련리공대학, 동북대학, 할빈공정대학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대학교는 취업시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취업시장 개척, 정보자원 공유 등 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이중초빙회는 '고품질 공급과 수요의 연결, 고수준 취업 육성'을 주제로 2025년 길림성 각 대학교 졸업생들의 충분한 취업을 힘써 추진했다. 초빙회는 길림에 입각하여 동북을 복사하고 전국을 향하며 학교와 지역, 학교와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국면을 힘써 구축했다. 초빙회가 유치한 815개 참가단위들이 3.8만여개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중 여러 중점 기업, 유명 단위외에 장춘시, 소주시, 포두시, 석가장시, 한단시, 념파시, 항주시 여행구 등 7개 지역으로부터 192개 고용단위를 초청했다.

이번 이중초빙회는 두가지 혁신적

인 포인트가 있다

처음으로 '채용+식사' 모식을 구축했다. 초빙회는 점심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점을 리용하여 여러 대학과 고용업체에 더욱 느슨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해주고 더욱 깊이 있고 정밀한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품질 높은 충분한 취업을 촉진했다.

동시에 교정 채용 '회의준비제도'를 조직, 실시했다. 초빙회에 앞서 여러 대학들에서는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과 취업 수요를 전면적으로 조사, 확보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을 충분히 동원, 배치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선전했다. 일부 취업이 어려운 졸업생들에 대해 지도원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여 현장에서 직장을 추천하게 했다. 초빙회 기간에 또 '공급과 수요의 연결, 일자리 추천 상담' 전문구역과 '정책자문', '구직지도' 등 특색 봉사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공급과 수요의 연결, 정책자문, 현장지도를 동시에 진달했다. 한편, 초빙회가 끝나면 지적 추적과 효과 평가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교정 채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학교와 기업 연결의 고밀도, 취업 지도의 고정밀도, 직무 전환의 고효율성을 한층 더 실현하고 교정 채용의 주요 경로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 3개 현, 전국문명도시 명명 예정 명단에

3월 24일, 중앙정신문명건설판공실은 <제 7회 전국 문명도시, 문명촌진, 문명단위 및 제 3회 전국문명가정, 문명교정 명명 예정 명단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합 202개의 도시단위가 제 7회 전국문명도시 명명 예정 명단에 선정되었다. 그중에서 성급 소재지로는 내몽골자치구 후호트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복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의 15개 직할시 도시구역, 하북성 승덕시 등 44개 지구급

시, 하북성 평산현 등 142개 현급시와 현이 선정 명단에 들었다.

그중에서 길림성에서는 휘남현, 장백조선족자치현,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등 3개 현이 선정되었다.

동북 기타 2개 성의 경우, 료녕성에서는 영구시, 룡양시 등 2개 지구급시, 해성시, 건평현, 북표시 등 3개 현급시와 현이 선정되었으며 흑룡강성에서는 철력시, 동강시, 무원시 등 3개 현급시와 현이 선정되었다.

/ 본지종합



최근 왕청현문화관 2025년 전민예술보급공익대강당 제 2기 행사가 현문화활동센터에서 있었다. 최근년간 왕청현문화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문화공익훈련 활동을 개최하고 대중의 다원화된 수요에 근거하여 서예, 미술, 성악, 기악, 타악, 무용, 휴대폰 촬영과 편집 등 여러가지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 길림일보

국가민위, 소수민족발전기금 관련해 새롭게 포치

24일, 국가민위에 따르면 최근 국가민위와 재정부는 중앙재정의 련계를 통한 향촌진흥보조금(소수민족발전임무)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민족지역의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며 '3가지 의의' 요구를 락착하고 중화민족공동

체의를 확고히 다지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동할 데 대해 명확하게 포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 지역은 자금 지원의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소수민족발전기금 프로젝트를 참담게 계획 및 선별하여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는 데도

유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하는 데도 유리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용도규정에 부합되는 변방부민 관련 프로젝트, 민족마을 건설 및 발전, 민족수공업 특색산업 발전 등이 포함된다.

통지는 각 지역은 프로젝트 초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고 프로젝트 실현

을 질서 있게 추진하며 프로젝트 자산의 후속 관리를 보완하고 성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황에 맞춰 농업연계 기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프로젝트 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자금 투입이 정책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민넷 조문판

훈춘세관 통해 과일 82.4톤 수출, 18% 성장

최근, 장춘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훈춘관할구의 과일 수출량은 82.4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을 실현하며 새해 '좋은 출발'을 실현했다.

훈춘에서는 지난해부터 '출구 과수원 및 포장공장' 5개를 새로 등록했는데 수출 과일의 종류가 더욱 풍부해지고 다원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 훈춘은 길림성 대 로씨야 무역의 중요한 창구로서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주변에 과수원이 많으며 농산물 자원이 풍부하여 과일이 국외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훈춘세관은 과일 수출의 품질 제고와 수출량 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요를 선도로 봉사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다. 한편으로 동식물 검사 기업 현장심사전문팀을 설립하고 '1대1'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출구 과수원 및 포장공장 등록을 마치도록 도왔다. 다른 한편으로 농산물 전문 창구를 설립하고 '통상구 창고 + 순세(顺势)'감독관

리' 모식으로 과일 수출의 도착 즉시 검사, 빠른 검사, 빠른 통관을 실현했다. 이와 동시에 '우선검측' 통로를 통해 '현장검사 + 실험실검측' 직송사슬을 개통함으로써 전반 통관 효율을 30% 이상 단축해 체류로 인한 품질 저하를 효과적으로 피면하고 신선한 과일 수출을 보장했다.

훈춘시 류정춘재배양식전문합작사 책임자는 "합작사는 세관의 도움으로 수출 과일 과수원과 포장공장의 등록자질을 획득하여 셀렌 사과가 성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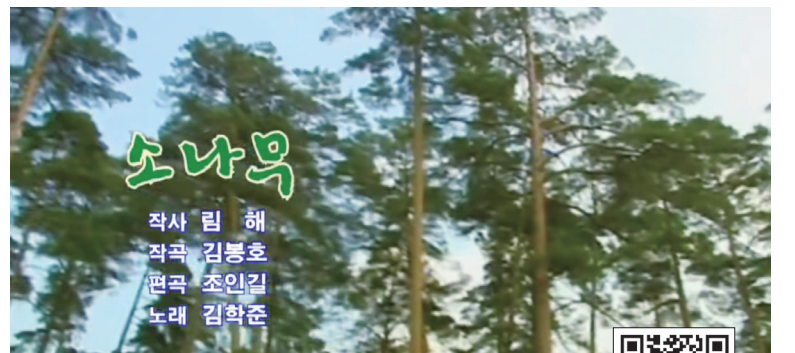
으로 국문을 나서게 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훈춘세관은 또 검측 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기술센터 실험실에 의탁하여 과일 농약 잔류와 병충해 검측 항목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검측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측 절차를 최적화하고 검측 효율을 높임으로써 길림성의 과일 수출에 힘을 보태게 된다.

/ 길림일보

· 가요 ·

소나무



작사: 림해
작곡: 림봉호
편곡: 조인길
노래: 김학준

